

## 기획재정부 일·가정양립 실천선언

저출산 위기 극복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직원 일동은 일·가정양립 실천 필요성에 공감하며,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천선언을 마련하였다.

동 실천선언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구성원 간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이를 통해 가정을 충실히 돌보면서 업무 생산성도 높여 국민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 직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유연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에 적극 동참한다.

-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 및 원격근무 활용을 권장한다.
  - 점심시간 전·후 1시간을 자녀돌봄 등 개인용무에 자유롭게 활용하는 '점심시간 연계 탄력근무'를 활성화한다.
  - 자녀돌봄 수요가 큰 방학기간에 '특별 재택근무 활성화 기간'을 운영한다.
- ☐ 임신준비 및 임신·육아기 직원들이 난임치료시술휴가,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등 가정친화적 복무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부서장은 부서원의 유연근무, 모성보호·육아시간 활용을 이유로 근무성적 평가, 업무 배분 및 지시 등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다.
  - 유연근무 및 모성보호·육아시간 실시 직원은 부서장 및 부서원들과의 업무 관련 의사소통에 적극 임하는 등 성실근무 의무를 다한다.
- ☐ 유연근무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유연근무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오가는 대화의 장(場)을 마련한다.

**둘째, 장시간 근무관행을 개선하고 ‘시성비(時性比)’ 높은 업무처리를 지향한다.**

- 근무시간·복무관리 중심 업무관리에서 탈피하여 **일·성과 중심의 업무관리** 문화를 정착해 나간다.
  - 개인과 부서의 업무 성과목표를 설정·공유하고, 투입량보다는 질과 성과로 평가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
  - 명확한 업무지시로 업무처리 방향·방법 설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시한을 설정한다.
  - 부서장과 부서는 업무추진 상 개인 역량의 강점·약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소통하고, 역량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 **합리적 업무분장**을 통해 **전 직원이 업무역량을 발휘·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업무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특정 부서·직원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한다.
  - 연가·유연근무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부서원 간 수시로 업무 진행상황과 자료를 공유하고, 복수 업무 담당 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 **업무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주말·휴일·심야시간대 출근 부담을 최소화하여 구성원의 활력과 창의성을 제고해 나간다.
  - 영상회의 및 보고를 활성화하여 원거리 출장 등으로 인한 비효율을 최소화한다.
  - 업무처리가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시간 외 연락은 자제한다.

**셋째, 연가 사용을 권장하여 구성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

- 부서장은 부서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 사유를 묻지 않는다.
- 부서별로 구성원간 의견교환을 거쳐 연가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을 지키도록 노력한다.